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도자료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페이스북 @kcanews	
 공정거래위원회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3월 22일(화) 조간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3월 21일(월) 12시]					
배포일	2022년 3월 21일 (총 11쪽)	담당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김인숙 팀 장 (043-880-5421)		
			김지연 조사관 (043-880-5426)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이희재 과 장 (044-200-4418)		
			김지원 조사관 (043-200-4425)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주의”

- 침대 낙상, 수영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다양하게 발생해 -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 안전사고 접수 건수: ('19년) 318건 → ('20년) 227건 → ('21년) 227건
 -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제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이와 더불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1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국내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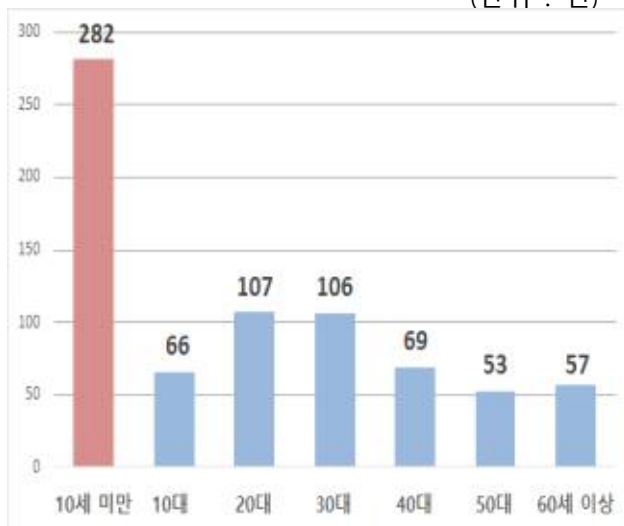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2019	2020	2021	총합계
건수	318	227	227	772

- (연령대별)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82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107건(13.9%), ‘30대’ 106건(13.7%) 등의 순이었다.
-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10세 미만’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사고가 88.0%(282건 중 248건)를 차지했고, 이 중 71.8%(248건 중 178건)가 ‘미끄러짐·넘어짐’, ‘추락’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 (발생장소별) ‘호텔’이 292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 144건(18.7%), ‘휴양시설’ 85건(11.0%)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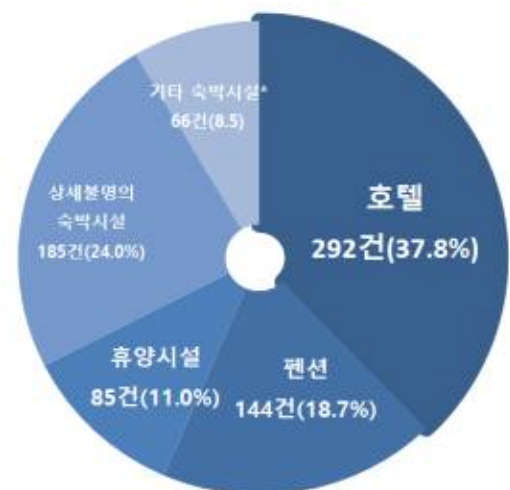
(단위 : 건)



* 연령 미상 : 32건

[발생장소별 현황]

(단위 : 건, %)



*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가. 연령대별·품목별 안전사고 현황

- (연령대별 위해다발품목)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는 전 연령에서 다발 발생한 품목으로, ‘30대 이상’에서 다발품목 1위를 차지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에서는 ‘침대’가 53건(1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24건(8.5%)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가 18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침대’ 5건(8.7%) 등의 순이었다.
 -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로 인한 사고의 경우 94.4%(18건 중 17건)가 ‘화장실·욕실’에서 발생하였다.
 - ‘10대’ 및 ‘30대’의 위해다발품목으로는 ‘수영장’이 접수되었는데 수영장 안전사고*의 경우 ‘미끄러짐·넘어짐’이 11건(33.3%), 다이빙 등으로 인한 ‘추락’이 9건(27.3%)이며, 익수 사고도 2건 접수되었다.
- * 수영장 안전사고접수 건수 : 33건
- 특히, 익수 사고 2건은 모두 미취학 아동(만3세 남, 만4세 여)에게 발생한 사고로, 안전요원이 없는 숙박시설 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대별 상위 3개 위해품목별(소분류)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

순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	침대	치킨	피임용품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53(18.8)	23(34.8)	27(25.2)	13(12.3)	16(23.2)	14(26.4)	18(31.6)
2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수영장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호텔	호텔	호텔	침대
	24(8.5)	5(7.6)	10(9.3)	9(8.5)	11(15.9)	4(7.5)	5(8.7)
3	호텔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호텔	수영장	침대	전기 마사지기	호텔
	20(7.1)	2(3.0)	7(6.5)	7(6.6)	3(4.3)	3(5.7)	5(8.7)

나. 안전사고 위해원인 및 주요 위해사례

□ (위해원인) ‘물리적 충격’이 474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관련’ 125건(16.2%), ‘식품 및 이물질’ 91건(11.8%),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54건(7.0%) 등의 순이었다.

-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는 ‘침실’(137건) 및 ‘화장실·욕실’(125건)에서 주로 발생했고, ▲ 호텔 방 침대에서 떨어짐(만1세 여), ▲ 호텔 욕실에서 샤워하다 미끄러짐(만62세 여) 등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안전사고는 뜨거운 ‘고온물질’로 인한 위해가 30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사례를 살펴보면, ▲ 바비큐 그릴에 데어 화상을 입음(만1세 여), ▲ 숯이 튀어 눈에 화상을 입음(만49세 여) 등 바비큐 이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도 확인되었다.

[숙박시설 관련 위해원인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구분	건수	비율
물리적 충격	미끄러짐·넘어짐	235	30.4	제품 관련	125	16.2
	추락	120	15.5	식품 및 이물질	91	11.8
	부딪힘	57	7.4	화재·발연·과열·가스	54	7.0
	눌림·끼임	44	5.7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	7	0.9
	기타	18	2.4	기타*	21	2.7
	소계	474	61.4	합계	7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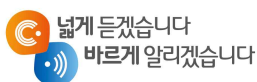
* 피부 관련, 의료기술 및 약물 등

[숙박시설 관련 주요 위해사례]

물리적 충격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	(만 1세, 여) 호텔 방 침대에서 떨어지며 모서리에 부딪혀 얼굴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만 62세, 여) 호텔 욕실에서 샤워하다 미끄러져 팔에 타박상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제품 관련	(만 14세, 남) 호텔 엘리베이터 안의 손잡이가 떨어지며 부딪혀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식품 및 이물질	(만 58세, 여) 호텔 뷔페에서 생선회를 먹은 후 설사와 메스꺼움이 지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
화재·발연·과열·가스	(만 49세, 여) 펜션에서 고기를 굽다 숯이 튀어 안구에 손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 봄철을 맞아 가족여행, 나들이 등으로 숙박시설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내 침실, 수영장, 바비큐장 등 여러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아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 어린이가 침대를 이용할 시에는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고, 취침 시에는 어린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고령자는 밤 중 화장실 이용 시 반드시 조명을 켜고 이용할 것
 - ▲ 샤워 후 가급적 물기를 닦고 비누 거품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정리할 것
 - ▲ 수영장 주변은 물이 있어 미끄러우니 아이들에게 뛰지 않도록 지도하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것
 - ▲ 바비큐 그릴, 화로대 등 고온 제품을 어린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것
 - ▲ 숯 등이 눈에 튈 수 있으니, 바비큐 그릴에 얼굴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 <붙임> 1.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
 2. 숙박시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3.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현황)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국내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임.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합계
건수	318	227	227	772

- (연령대) ‘10세 미만’이 282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07건(13.9%), ‘30대’ 106건(13.7%) 등의 순이었음.

-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10세 미만’(282건)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사고가 88.0%(248건)를 차지했고, 이 중 71.8%(248건 중 178건)가 ‘미끄러짐·넘어짐’, ‘추락’으로 발생함.

- (발생장소) ‘호텔’이 292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 144건(18.7%), ‘휴양시설’ 85건(11.0%) 등 순이었음.

[연령대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건수	비율
10세 미만	282	36.5
10대	66	8.5
20대	107	13.9
30대	106	13.7
40대	69	8.9
50대	53	6.9
60세 이상	57	7.4
미상	32	4.2
합계	772	100.0

[발생장소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호텔	292	37.8
펜션	144	18.7
휴양시설	85	11.0
상세불명의 숙박시설	185	24.0
기타 숙박시설*	66	8.5
합계	772	100.0

*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 (품목)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가 201건(26.0%)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시설 및 서비스’ 185건(24.0%), ‘가구 및 가구설비’ 154건(19.9%) 등의 순으로 접수됨.

[숙박시설 관련 위해품목(대분류)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구분	건수	비율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201	26.0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35	4.5
건물, 시설 및 서비스	185	24.0	주방기기 및 용품	22	2.8
가구 및 가구설비	154	19.9	스포츠 및 취미용품	20	2.6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	49	6.4	기타*	57	7.4
가공식품	49	6.4	총합계	772	100.0

* 생활용품, 완구 및 게임용품

- (연령대별 위해다발품목)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는 전 연령에서 위해 다발품목으로 꼽혔으며, ‘30대 이상’에서 위해다발품목 1위를 차지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에서는 ‘침대’가 53건(1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24건(8.5%) 등의 순으로 접수됨.
-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가 18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침대’ 5건(8.7%) 등의 순이었음.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18건)의 경우 17건(94.4%)이 ‘화장실·욕실’에서 발생함.
- ‘10대’ 및 ‘30대’의 다발 품목으로는 ‘수영장’이 접수되었고, 수영장 안전 사고*의 경우 ‘미끄러짐·넘어짐’ 11건(33.3%), 다이빙 등으로 인한 ‘추락’ 9건(27.3%) 순으로 발생했고, 익수 사고(2건)도 접수됨.

* 수영장 안전사고접수 건수 : 33건

- 특히, 익수 사고 2건은 모두 미취학 아동에게(만3세 남, 만4세 여) 발생한 사고로 안전요원이 없는 숙박시설 내 수영장 이용의 경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연령대별 상위 3개 위해품목별(소분류)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

순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	침대	치킨	피임용품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53(18.8)	23(34.8)	27(25.2)	13(12.3)	16(23.2)	14(26.4)	18(31.6)
2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수영장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호텔	호텔	호텔	침대
	24(8.5)	5(7.6)	10(9.3)	9(8.5)	11(15.9)	4(7.5)	5(8.7)
3	호텔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호텔	수영장	침대	전기 마사지기	호텔
	20(7.1)	2(3.0)	7(6.5)	7(6.6)	3(4.3)	3(5.7)	5(8.7)

□ (위해원인) ‘물리적 충격’이 474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관련’ 125건(16.2%), ‘식품 및 이물질’ 91건(11.8%), ‘화재·발연·과열·가스’ 54건(7.0%) 등의 순이었음.

-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위해 사례는 ‘침실’ 137건(28.9%), ‘화장실·욕실’ 125건(26.3%)에서 주로 발생했고, ▲호텔 방 침대에서 떨어짐(만1세, 여), ▲호텔 욕실에서 샤워하다 미끄러짐(만62세, 여) 등의 사례가 접수됨.
- 특히,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안전사고는 뜨거운 ‘고온물질’로 인한 위해가 30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 사례를 살펴보면, ▲바비큐 그릴에 데어 화상을 입음(만1세, 여), ▲ 숯이 튀어 눈에 화상을 입음(만49세, 여) 등 바비큐 이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도 확인됨.

[숙박시설 관련 위해원인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구분	건수	비율
물리적 충격	미끄러짐 넘어짐	235	30.4	제품 관련	125	16.2
	추락	120	15.5	식품 및 이물질	91	11.8
	부딪힘	57	7.4	화재·발연·과열·가스	54	7.0
	눌림·끼임	44	5.7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	7	0.9
	기타	18	2.4	기타*	21	2.7
	소계	474	61.4	합계	772	100.0

* 피부 관련, 의료시술 및 약물 등

□ (위해증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43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 및 타박상’ 117건(15.2%),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96건(12.4%) 등의 순이었음.

○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세부 내용으로는 ‘열상(찢어짐)’이 252건 (73.5%)으로 대다수였으며, ‘찰과상’ 32건(9.3%), ‘출혈 및 혈종’ 12건 (3.5%) 등의 순이었음.

○ ‘뇌진탕 및 타박상’은 ‘타박상’이 90건(7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진탕’이 27건(23.1%) 접수됨.

[숙박시설 관련 위해증상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구분	건수	비율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343	44.4	신체 내부 장기손상	18	2.3
뇌진탕 및 타박상	117	15.2	기타손상*	63	8.2
근육, 뼈 및 인대손상	96	12.4	해당없음	55	7.2
화상	45	5.8	총합계	772	100.0
전신손상	35	4.5			

* 체내 위험 이물질, 위해증상 확인 불가 등

□ (위해부위) ‘머리 및 얼굴’이 326건(4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151건(19.6%), ‘팔 및 손’ 119건(15.4%) 등의 순이었음.

[숙박시설 관련 위해부위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머리 및 얼굴	둔부, 다리 및 발	팔 및 손	신체 내부	몸통	목 및 어깨	기타*	해당 없음	합계
건수	326	151	119	52	21	15	33	55	772
비율	42.2	19.6	15.4	6.7	2.7	1.9	4.3	7.2	100.0

* 전신 손상, 위해부위 확인 불가 등

붙임 2**숙박시설 관련 주요 소비자 위해사례**

위해원인	주요 위해사례
물리적 충격 (미끄러짐·넘어짐·추락 등)	(만 1세, 여) 2019년 8월 호텔 방 침대에서 떨어지며 모서리에 부딪혀 얼굴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만 37세, 남) 2021년 10월 펜션 부속시설인 수영장에서 넘어져 턱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만 62세, 여) 2021년 6월 호텔 욕실에서 샤워하다 미끄러져 팔에 타박상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제품 관련	(만 14세, 남) 2019년 1월 호텔 엘리베이터 안의 손잡이가 떨어지며 부딪혀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만 21세, 여) 2020년 12월 호텔 화장실 세면대가 깨지며 베어 다리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식품 및 이물질	(만 58세, 여) 2021년 7월 호텔 뷔페에서 생선회를 먹은 후 설사와 메스꺼움이 지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
화재·발연·과열·가스	(만 49세, 여) 2019년 6월 펜션에서 고기를 굽다 숯이 튀어 안구에 손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	(만 34세, 남) 2020년 5월 멀티탭에서 스파크가 튀어 손가락에 전기에 의한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숙박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 (실내 및 침실)

- 어린이가 침대를 이용할 시에는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고, 취침 시에는 어린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어린이들이 침대, 소파, 가구 등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 (화장실·욕실)

- 샤워 후 가급적 물기를 닦고, 비누 거품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정리해주세요.
- 고령자는 밤 중 화장실 이용 시, 반드시 불을 켜고 사용해주세요.

☐ (수영장)

- 수영장 주변은 물이 있어 미끄러우니, 아이들에게 뛰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 물속에 점프 또는 다이빙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주세요.

☐ (바비큐장)

- 바비큐 그릴, 화로대 등 고온 제품을 어린이들이 만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 숯 등이 눈에 튈 수 있으니 바비큐 그릴에 얼굴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마세요.